

**꼭** **박힌**

대구교육 8년,

이제는

**확**<sup>트</sup>  
**바꾸자!**



**민주진보**  
**대구교육감**  
후보



**임성무**

**39년 교사, 현장교육전문가**

# 후보자 정보 공개자료

## 대구광역시교육감선거

### 1. 인적사항

후보자 성명	성별	생년월일 (세)	직업	학력	경력
임성무	남	1963.10.12. (62세)	교육활동가	대구교육대학교 초등교육과 졸업	(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구지부장 (현) 대구민주진보교육포럼 대표

### 2. 재산상황 및 병역사항

재산상황(천원)					병역사항		
계	후보자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후보자	배우자	18세이상 직계비속
329,334	158,410	170,924	-	장남: 고지거부 장녀: 고지거부	육군 하사 (복무만료)	-	장남: 육군 병장 (만기)

### 3. 세금 납부·체납실적 및 전과기록

최근 5년간 소득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납부 및 체납실적(천원)				후보자 전과기록
구분	납세액	체납 내역		
		체납액 누계 (완납일자)	현 체납액	
계	63,611	0	0	- 상해 : 벌금 1,000,000원 (2009.12.28)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벌금 1,000,000원(2014.01.21)
후보자	60,697	0	0	
배우자	2,064	0	0	
직계존속	-	-	-	
직계비속	850	0	0	

### 4. 소명서

상해 : 과잉 고발로 발생한 사건이며 약식기소에 의한 약식명령으로 100만원 벌금 처분을 받음.

# 대구 대표 교육전문가들이 추천하는 대구 교육을 살릴 책임자



## “학교의 산적한 문제를 풀어줄 해결사”

학교 실정을 누구보다 잘 아는, 40년 동안 아이들을 가르쳐온 임성무 선생이 교육감으로 출마한다니 너무 믿음직합니다.

원래도 팔방미인에 동네해결사 같은 분이려, 학교의 산적한 문제를 푸는 데는 최고 책임자입니다. 꼭 대구교육감으로 당선돼 실력을 보여주길 바랍니다.

**이정우 경북대 명예교수, 노무현 대통령 정책실장**



## “아이들이 빛나도록 교육청을 바꿀 수 있는 사람”

오랜 교사 생활과 학교장을 거치면서 자기주도적 학습, 학생들의 재능을 빛내는 교육에 대해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 부분에서 생각이 딱 통하는 사람, 이미 실천하고 있는 사람이 임성무 선생이었습니다.

그는 교육청의 탁상행정을 학교현장에 꼭 필요한 행정으로 바꿀 수 있는 책임자입니다.

**변태석 전 가창중학교 교장**



## “변화가 필요한 대구 교육, 새로운 교육감이 필요합니다”

오랜 기간 대학에 총장으로 있으면서 초·중등 교육의 중요성을 깊이 느꼈습니다. 대구에도 이제 학교 현장을 잘 아는 현장 중심 교육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아이들과 함께하며 생태교육을 실천해 온 임성무 선생이야말로 대구 교육을 새롭게 이끌 책임자라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시대에는 새로운 교육감이 필요합니다. 그 변화의 시작, 임성무 선생님입니다.

**홍덕률 전 대구대학교 총장**



## “아이들이 가고 싶은 행복한 학교를 만들어줄 교육감”

임성무 선생님은 '아이들이 가고 싶은 학교를 만들기 위해 밤하늘의 별을 함께 관찰하고, 강을 따라 걸으며 철새들과 친구가 되는 법을 스스로 깨닫게 했습니다. '주입식 교육'이 아니라 '토론 중심의 탐구 수업'을 지향하며 가르치는 일을 '천직(天職)'으로 여겼던 선생님. 답답한 대구의 교육 현실 속에 '현장 교육 전문가' 임성무 선생님의 교육감 출마 소식은 학부모의 한 사람인 저에게는 '선물'처럼 다가왔습니다.

**김동은 계명대학교 동산병원 이비인후과 교수**





# 학교 현장과 동떨어진 AI교과서 강요,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검증 안된 오류투성이 AI디지털교과서 99% 도입.  
 접속률 10%에 낭비된 141억.  
 기초학력 향상 예산 47% 삭감.  
 학생 생활지도 예산 31% 삭감.



교사·학부모의 반대에도 밀어붙인 결과는 참혹합니다.  
 교사는 기기 오류 해결에 진을 빼고 학생들의 수업 집중력은 떨어졌습니다.  
 1년 만에 교과서 지위 박탈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 2025년 AI 디지털교과서 채택률 비교



AI 디지털 교과서를  
 실제 수업시간에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77.4%)



현장 교사 77%가 '불필요'하다 응답

# 극소수를 위한 IB 교육으로 차별받는 다수 학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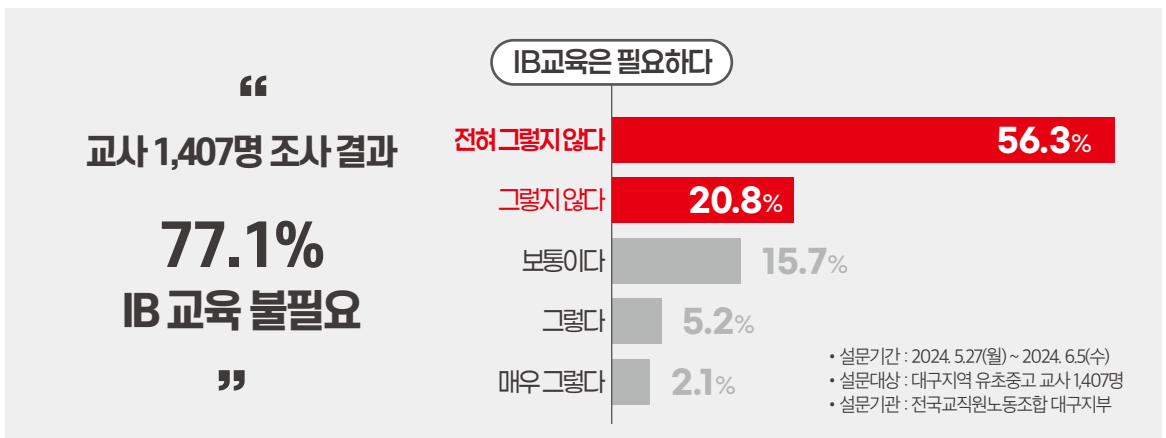
스위스에 있는 교육재단 IBO에서 운영하는 국제 교육 프로그램, IB.  
 IB 고등학교 학생 중 약 20%만 IB를 선택합니다.  
 IB 과정은 대입과 연계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IB가 필요한 외국대학 입학생은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대구 초·중등 IB학교의 경우,  
 학생·학부모가 원하지 않아도 무조건 IB교육을 이수하게끔 강제하고 있습니다.  
 외국 브랜드 사용료 등 IB 지출 증가로 대다수 학생 교육비는 줄었습니다.



## 임성무가 바로 잡겠습니다!

- ✓ **기본** : 모든 학생들을 위한 국가교육과정을 충실히 보장
- ✓ **다양성** : 공립형 대안학교 설립, 작은학교 특화 발전
- ✓ **선택** : 초중등 IB 학교, 희망학생만 참여하도록 선택권 보장
- ✓ **공정** : 특혜받는 소수가 아닌 모든 아이를 위한 공정한 예산 집행



# 기초학력 튼튼 학습부진 제로



무리한 학급 축소 정책으로 대구, 학급당 학생 수 전국 2위!  
과밀학급을 해결해야 교사가 학생 한 명 한 명을 살필 수 있습니다.  
난이도가 상승하는 초3~4학년 국어·수학 수업부터  
1수업 2교사 배치로 현장에서 학습부진을 즉시 해결하겠습니다.

- ① 학생들의 발달 단계를 고려한 학급당 학생 수 적용  
-유·초등 저학년부터 정원 감축, 전 학년 학급당 20명 이하로  
-과밀학급이 있는 학교에 우선적으로 1학급 2교사 적용
- ② 초 3~4학년 국어·수학 수업 2교사제 적용
- ③ 개인별 학습 데이터 구축으로 체계적 학습지원
- ④ 고1부터 진로 및 입시 상담 전문 컨설팅 지원
- ⑤ 특수교육 및 다문화 학생, 수업 지원 강화

# 기후위기와 시격변에 대비한 생태전환교육



교육의 목적, 교육과정 총론을 바꾸어야 합니다.  
생태전환교육으로 지구생태시민을 길러내어 인류에게 닥친  
기후위기와 AI격변으로 인한 시대변화를 돌파하겠습니다.

- ①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생태전환교육' 전면 도입
- ② 초·중·고 시 종합교육계획 수립  
: AI와 인간다움에 대한 고찰에서부터 AI 윤리, 주도적 AI 활용  
방법에 이르기까지 체계적 학습
- ③ 종이책 정독 능력, 문해력, 표현하고 토론하는 능력을 높이는  
독서교육 강화
- ④ 대학 연구자의 고등학교 전문동아리 지원 체계 구축
- ⑤ 인문학·자연과학 기초학문 및 금융·주식 등 실용경제교육 강화

# 유·초등 방과후학교·돌봄교실 무상 지원 확대



- ① 유·초등 전 학생에게 연간 50만원 방과후수업 및 특기적성프로그램 무상이용권 지원
- ② 돌봄 간식, 방학 중 돌봄교실 점심 무상 지원
- ③ 질높은 무상 프로그램으로 전국 평균을 넘는 대구 사교육비(21~24년) 절감
- ④ 마을공동체 및 지자체와 함께 다양한 방과후·주말·계절학교 진행
- ⑤ 지자체와 협력하여 지역아동센터 시설 및 예산지원

# 교육 격차 해소, 모두가 빛나는 교육



- ① 특정 학교 편중 예산 및 지역별 교육 격차 해소
- ② 학교 특색을 살리도록 학교 기본운영비 확대
- ③ 군위군 1면 1학교 회복: 공동학교 운영
- ④ 작은 학교와 지역을 함께 살리는 농촌유학 지원



# 우리 아이 건강 지킴 통합솔루션



## 1 마음 건강 지킴

- 학교 상담실 전문성 및 기능 강화

: 정기적 상담 및 심리검사로 위기 조기 발견, 전문상담교사 확대 배치, 지역사회 상담인프라와 연계.

- 어려움을 겪는 학생이 회복 때까지 전문 상담 등 지속적 지원

- 유아놀이치료비 지원

- 재난경험 아동, 트라우마와 경제적 위기에서 신속히 벗어나도록 원스톱 지원

## 2 눈건강 치아건강 책임지는 학교

- 치과주치의제(구강검진 포함): 초 1, 4학년에서 중1, 고1까지 확대

- 고1 시력 이상 비율, 74.45%. 교실 내 조명시설·교실 적정 밝기 점검

- 시력 저하 및 상실 학생, 안과 정밀 검사가 필요한 학생을 지원

## 3 안전하고 즐거운 학교 공간

- 유·초등과정 놀이친화학교 조성: 놀권리 보장, 놀이강사 지원

- 등하굣길 안전시설 점검 및 안전도우미 배치 확대

- 각종 운동기구를 갖춘 학생 헬스룸 설치

- 체험학습, 수학여행 안전지원단 운영

- 학교생활의 즐거움과 심리적 안정감,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놀이, 예체능활동, 자율적인 동아리 활동 강화

- 급식 로컬푸드 사용, 음식쓰레기 및 일회용품 줄이기 지원



# 수업과 학생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교사 행정업무 대폭 축소



연간 1만 7천 건의 공문, 선생님을 아이들 곁에서 빼앗고 있습니다.  
학교당 평균 6개의 공모사업, 320여 개의 교사 행정업무.  
선생님이 업무에 치여 아이들을 놓치고 있습니다.

수업과 상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임성무가 선생님을 아이 곁으로 돌려보내겠습니다.  
교사들의 전문성과 열정을 되살려 드리겠습니다.

- ① 교육청이 주도하는 교육정책의 50%를 덜어내고 남은 예산과 인력으로 학교 교육 지원
- ② 교사가 50% 동의하지 않는 정책, 강제 시행 금지.  
공론화와 깊이 있는 토론으로 결정
- ③ 학교 자율 예산제 도입으로 학교 교육활동 자율성 확대

# 교육활동의 온전한 보장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교육



교사들의 꿈을 지켜주겠습니다.  
교직원으로부터 불신받는 정책을 개선하고 대구교육의 토대를 새로 만들겠습니다.

## 1 교육활동 보호 정책 강화

- 교육활동 면책권 보장 및 차등성과급제 폐지
- 평교사 참여형 교장공모제 실시
- 교육감 직속 '악성 민원 대응팀' 설치

## 2 학교 구성원의 근무 여건 개선

- 학교급식실 폐암 산재 예방, 노동안전 강화
- 전국 최하위 수준인 대구 학교비정규직 근로조건 개선

## 3 소통하는 교육감

- 교원, 공무원, 공무직 노동조합과의 소통 정례화, 갈등 예방

## 4 입시경쟁 중심 교육 개혁

- 지역간 교육격차 해소 및 대입 제도 개편
- 대학무상화 및 지역대학 육성 지원



# 대구, 이제 교육도 바뀌어야 합니다.

대구교육은 IB와 AI교과서 등 특정 분야에 예산을 편중하여  
대다수 학생의 교육 여건이 악화되었습니다.  
교사들은 과중한 업무에, 아이들은 부실한 교육에 시달렸습니다.

지난 8년의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는 변화가 시급합니다.  
보여주기식 치적이 아니라, 기초학력을 다지듯  
내실 있는 대구교육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얕은 구시대 교육행정, 보수와 진보의 이념 전쟁을 끝내고  
현 정부 교육정책과 발맞춰 대구교육을 발전시킵시다.  
정치는 현재를 바꾸고 교육은 미래를 바꿉니다.  
대구의 현재와 미래를 모두 바꿀 6·3 지방선거!  
누구에게 미래를 맡기시겠습니까?

학교 현장을 누구보다 잘 아는 39년 현장 교사 출신,  
임성무가 답입니다.

1963년 경북 청송 출생  
청송 이전초, 부동중 졸업  
대구 심인고(23회) 졸업  
대구교육대학교 초등교육과 졸업(21회)

**39년 6개월 교사, 교육활동가**  
내당초, 성북초, 진천초, 월곡초, 도원초,  
상원초, 상인초, 신당초, 강림초, 화동초  
전) 전교조 대구지부 지부장  
현) 대구민주진보교육포럼 대표

## 민주진보교육감 후보 임성무

임성무의 진심캠프 | 대구광역시 중구 중앙대로 357  
☎ 053) 425-0603 @ seongmu260603@gmail.com

### 언론방송을 통한 교육운동

대구CBS 라디오세상일기 고정패널(2년)  
대구MBC 라디오 시인의저녁 고정패널(2년)  
영남일보 행복한국교육 칼럼 (10년 152회 연재)  
평화뉴스, 매일신문, 대구MBC, KBS에 토론과  
다큐에 다수 출연

### 환경과 생물다양성 보존 활동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상임대표  
녹색교육연구소장, 대구환경운동연합 운영위원  
영남자연생태보존회 전문위원  
대구시 달성습지 복원 자문위원  
팔현습지 및 낙동강 독수리 보존활동  
학교 천체관측 지원 (한국아마추어천문학회 천문지도사 2급)

### 글쓰기 이력

『가르치며 배웁니다』 저자  
민주시민교육 교과서 공저자  
학생기자 출판 지도 (학급문집, 어린이책 5권 출판)

### 종교 활동

천주교대구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사무국장  
생명평화결사 등불